

2016 시즌 K리그 클래식 11개 구단 연봉 현황

## 전북 현대 1·2·3위 싸움이

김신욱 14억6천만원 최고...김보경·이동국 順  
광주FC 총액 25억·평균 8082만원 '최하위'

전북 현대가 2016시즌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연봉 1위 자리를 싹쓸이했다. 상주 상무를 제외한 11개 구단 연봉총액·평균 연봉 1위도 전북이다. 연봉 최하위 자리는 광주 FC가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2일 클래식 11개 구단의 선수 기본급과 수당(출전수당, 승리수당, 무승부수당, 기타수당)을 더한 연봉 자료를 공개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연봉 총액 1위는 14억6846만원의 김신욱(사진)이었다. 지난해 득점왕인 김신욱은 올 시즌 울산 현대에서 전북으로 이적하며 '스타 군단'의 한 축을 담당했다. 2위는 전북의 미드필더 김보경, 3위 역시 전북의 이동국이다.

지난해 일본프로축구 마쓰모토와의 계약이 만료된 뒤 전북에 새동지를 탄 김보경은 10억860만원, 이동국은 8억6726만원으로 김신욱의 뒤를 이었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강원 FC의 이근호(8억6190만원), 수원 삼성의 염기훈(7억3750만원)이 각각 4~5위에 올랐다.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 1~5위에도 전북



선수 세 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레오나르도가 7억346만원으로 '연봉킹'이 됐고, 서울 대안(14억원), 전북 에두(10억1850만원), 전북 로페즈(8억9678만원), 수원 산토스(8억5130만원) 순이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 1위도 전북의 차지였다. 연봉 총액 146억2617만원을 찍은 전북의 평균 연봉은 3억9530만원이었다. 2위 서울(총액88억844만원, 평균 2억2201만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시민구단 광주 FC는 연봉 총액·평균 연봉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봉 총액은 전북의 17%에 불과한 25억0548만원, 평균 연봉은 8082만원에 그쳤다. 처음 클래식 무대를 밟은 시민 구단 수원 FC(30억5212만원, 8976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클래식 11개 구단 전체 선수의 연봉 총액은 676억1985만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7655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FC선수들이 22일 선수단과 사무국 급여 1%를 기부해 마련한 연탄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저소득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팬들에게서 받은 사랑 돌려 드립니다” 광주FC 선수단 급여 1% 나눔

온종일 겨울비가 내린 22일, 광산구 신가동 한 좁은 골목길에 비 옷 차림의 건장한 청년들이 나란히 섰다. 잠시 뒤 이들의 손과 손을 건너 연탄이 움직였다. 손이 연탄 가루로 까맣게 물들고, 이마에는 비가 섞인 땀이 흘러도 이들은 내내 환한 표정이었다. 분주하게 몸을 움직인 이들은 거침없이 K리그 클래식 무대를 누비던 광주 FC의 선수들이었다.

광주 선수단이 잠시 휴가를 뒤로하고 한 자리에 섰다.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 선수들은 사랑 나눔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던 2016시즌을 마무리했다.

선수단 및 사무국은 급여 1%를 기부금으로 적립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전달할 2000장의 연탄을 마련했다. 선수단은 광산구

독거노인 등에 연탄 2천장 전달...올해 일정 마무리

가정을 찾아 직접 배달까지 하며 온정을 나눴다.

올 시즌 가장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광주의 클래식 잔류를 이끈 송승민은 “올 시즌은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경기장을 찾아 응원 해준 많은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직접 봉사를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내년 시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서울에서 이적해 광주의 대표 선수로 성장한 김민혁에게도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됐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마음도 편하고, 좋은 일까지 하게 돼서 더 기분이 좋다.

김민혁은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마음 편하게 휴가 잘 보내고 있다. 연탄 봉사활동은 처음인데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뜻깊은 일을 하는 것이라서 재미있게 했다. 의미 있는 하루가 됐다. 좋은 일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 보람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선수들 뒤에서 묵묵하게 골대를 지키던 골키퍼 윤보상은 이번 봉사활동에서도 최후방에서 서서 묵묵하게 어려운 일을 수행했다. 쌓아온 연탄을 챙겨 선수들에게 전달하느라 누구보다 분주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생각보다 힘들었다”며 미소를 보인 윤보상은 “이웃을 위한 일을 해서 마음이 따뜻하다. 또 오랜만에 우리 선수들이 함께 모였는데 다들 표정도 좋고 반가웠다. 휴가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모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윤장현 구단주, 기영욱 단장, 남기일 감독 및 선수단, 사무국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윤장현 구단주가 주재한 오전에도 참석했다.

한편 사랑 나눔으로 2016년 공식 일정을 끝낸 광주 선수들은 내년 1월2일 소집, 2017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 ‘멀티플레이어’ 광주대 모재현 수원FC 입단



필터 등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하다.

광주대 축구부 모재현(스포츠레저학과 2년)이 프로축구 수원FC에 입단했다. 모재현은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포워드,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2016 BTV-CUP 국제축구대회’ 대학선발팀 대표에 선발됐고, ‘2016 인천국제공항 U리그 왕중왕전’ 3경기에 출전해 혼자 5골을 넣는 등 광주대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바 있다.

모재현은 “좋은 플레이로 광주대 축구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 영화배우 송강호 아들 송준평 수원 삼성행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이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활약한 스트라이커 유주안을 포함한 6명의 신인선수를 선발하며 새 시즌 전력 보강에 나섰다. 배우 송강호의 아들 송준평도 수원에 합류했다.

수원은 22일 “유스팀 출신의 유주안(18·매탄고), 윤용호(20·한양대), 송준평(20·연세대), 주현호(20·동국대) 등 4명을 우선 지명으로 선발했다”며 “고려대 수비형 미드필더 이상민(21)과 송호대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김준형(20)은 자유 선발로 뽑았다”고 밝혔다.

우선지명으로 선발한 유주안은 지난해 10월 칠레에서 치러진 FIFA U-17 월드컵에서 스트라이커로 기니와 치러 조별리그 2차전에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주안은 수원의 핵심 미드필더인 권창훈처럼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 매탄고에서 곧바로 수원 유니폼을 입는다.

또 영화배우 송강호 씨의 아들인 송준평



영화배우 송강호 씨와 아들 송준평. /연합뉴스

도 수원에서 프로데뷔를 하게 됐다. 오른쪽 풀백 자원인 송준평은 매탄고를 거쳐 연세대를 다니다가 수원에 입단하게 됐다.

송준평은 매탄고 시절 오른쪽 공격수로 뛰다가 연세대에서는 오른쪽 수비수로 뛰었다. 수원은 오른쪽 수비수인 신세계의 군인대로 생긴 공백을 송준평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고려대 전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비형 미드필더 이상민과 활과 기술을 고루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 김준형도 내년 수원에서 활약하게 됐다. /연합뉴스



KIA 홍건희(오른쪽부터),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 강춘심 원장, 밝은안과21병원 원 김근오 원장이 '사랑의 기금'을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KIA-밝은안과 21병원 복지시설에 성금

월간 MVP 시상금 등 적립

KIA 타이거즈와 밝은안과 21병원이 연말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KIA는 22일 투수 홍건희, 밝은안과21병원 김근오 원장 등과 광주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사랑의 기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2016시즌 밝은안과21병원 월간 MVP로 선정된 브렛 필, 임창용, 서동욱, 홍건희, 김주찬, 양현종 등이 시상금 중 일부를 적립한 것이다.

김근오 원장은 “매년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아빠 입장이 되다 보니 더욱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면서 “아이들이 주위의 관심과 사랑 속에 밝고 활기차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건희는 “요즘 화순중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해서 기분 좋게 광주에 다녀왔다. 좋은 일을 해서 뿌듯하면서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내 이름으로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우승자의 투구 22일 경기도 안양 호계볼링장에서 열린 '제11회 스포츠·도미노피자컵 SBS 한국볼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미국 다니엘 메류언 선수가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3620만 달러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총상금 14% 인상

내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총상금이 인상된다.

AP통신은 21일(이하 현지시간) “2017년 호주오픈의 총상금은 3620만 달러(약 432억7000만원)이며, 남녀 우승자에게는 각각 268만 달러(약 32억3000만원)가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대회 총상금 3185만 달러(약 389억7000만원)보다 14% 올라간 금액이다. 또한, 본선 1라운드에만 진출해도 3만6220달러(약 433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계 4대 그랜드슬램 대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호주오픈은 내년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다.

올해 우승자는 남자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여자부 안젤리크 케르버(독일)다.

크레이그 티리 호주오픈 토너먼트 디렉터는 “우리는 모든 선수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테니스 투어 대회의 상금을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호주오픈·프랑스오픈·윌리엄스·US오픈) 가운데 가장 큰 상금이 걸린 건 US오픈으로 총상금 4630만 달러(약 553억5000만원)다. /연합뉴스